

## 양택풍수의 택지론과 현대적 의미

천인호\*

1. 서론
2. 양택사신사와 산수론
3. 충살의 회피와 외형길흉론
4. 현대적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양택풍수서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음택풍수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온 양택풍수론의 특징과 의의를 규명하여, 이를 현대의 부동산학 및 도시학 등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는데 있다. 풍수는 본질적으로 음택과 양택을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보았으며, 이론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음택풍수서와 아울러 양택풍수서도 등장하였는데 한·중·일양택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사신사는 4개의 산으로 이루어지나, 양택사신사는 산, 강, 연못, 도로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양택의 개방성과 생활의 편리성, 교통성을 중시한 것이다. 사신사가 없을 경우 특정한 나무를 심어 대체하여 비보함으로써 음택보다 단순함을 보인다. 둘째, 양택은 집 자체의 모양을 오행으로 나눈 오성으로 길흉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집 앞이나 뒤에 산의 형상이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생태적 시각이 나타났다. 셋째, 물과 도로를 동일하게 보아 이들이 집을 찌르듯한 모양은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돌을 세우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cheonih@naver.com)

거나 나무를 심는 비보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양택풍수론이 현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보인다. 즉, 수구가 관쇄되어야 한다는 점은 양택사신사는 전면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은 동서가 좁아도 남북방향을 길어야 한다는 점은 일조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 현대의 주택과 도시에는 양택 풍수이론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음택풍수이론 역시 양택이론에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택과 양기에 적합한 음양택풍수이론의 통합 연구도 필요하다.

\* 주요어: 풍수, 풍수지리, 부동산, 도시, 양택풍수

## 1. 서론

고전 풍수서에서는 음택과 양택의 풍수적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음택풍수에서의 논리체계인 용·혈·사·수·향 등이 양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혈(穴)’을 선정하는 원리인 음택풍수이론이 도입 선정은 물론 읍치나 마을, 특정 양택 선정까지 영향을 미쳤다.

고전 풍수서인 『설심부』에는 양택이 음택과 다른 것은 양택은 지세가 넓고 평평해야 하며 국면이 좁은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sup>1)</sup> 그리고 『의룡경』에도 양택이나 음택이나 편안한 거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음택이나 양택이나 땅의 역량에는 차이가 없다. 대개 양택은 좁은 것을 꺼리는데 혈이 좁으면 음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sup>2)</sup>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음택의 풍수논리가 양택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음양택의 차이는 규모의 크

1) 『雪心賦』, 「陽宅論」, “若言陽宅何異陰宮, 最要地勢寬平, 不宜堂局逼窄.”

2) 『疑龍經』, 「疑龍十門」, “問君陽宅要安居, 此與安墳事一如. 人家無墳有善宅, 宅與陰地力無殊. 大凡陽宅性穴小, 穴小只宜安墳妙.”

기 차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음택은 생기가 밀집한 특정한 자리(穴)에 조상을 모셔 '동기 감응(同氣感應)'에 의한 발복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양택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수와 생활공간, 생산공간의 확보 및 타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교통결절성의 확보 등도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음택풍수서의 출현과 아울러 양택풍수서도 출현하였다.<sup>3)</sup> 그 대표적인 고전이 『황제택경』으로 음택과 양택은 규모의 크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작용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땅이 좋으면 곡식이 무성한 것처럼 집터가 좋으면 사람이 번성한다. 복 있는 사람은 미모를 갖춘 사람과 같은데 집이 길하다면 추하고 불품없는 사람도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아 하늘이 좋은 것을 더해 준다. 그러나 집이 나쁘면 추한 사람이 헤어져 옷을 입은 것과 같다.”<sup>4)</sup>고 하여 집을 옷과 비교하여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집터가 좋다면 복을 더해 준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음택은 매장을 전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7년 현재 84.6%이며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sup>5)</sup>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국 음택풍수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수연구도 음택중심의 연구에서 양택중심의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풍수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 실현과 함께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택풍수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론을 정리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의와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부동산학, 도시학 등의 인접학문에 대해 시사점과 풍수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음택풍수론과 마찬가지로 양택풍수론도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특히

3) 본 연구에서 음택풍수서, 양택풍수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음·양택 풍수이론을 구별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葬書』, 『洞林照膽』, 『雪心賦』, 『撼龍經』, 『人子須知』 등은 양택과 양기와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음택과 관련한 내용이라 음택풍수서라 칭하고, 이와 반대로 주로 양택풍수를 논의한 책을 양택풍수서로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편의를 위한 분류에 불과하다.

4) 『黃帝宅經』, 卷上, “地善即苗茂, 宅吉即人榮. 人之福者, 喻如美貌之人. 宅之吉者, 如醜陋之子, 得好衣裳, 神彩尤添一半. 若命薄宅惡, 即如醜人更又衣弊, 如何堪也. 故人之居宅, 大須慎擇.”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18일.

양택방위론의 경우 방수론(放水論)과 집안 내부의 문, 주, 조를 대상으로 한 삼요(三要)와 아울러 안방, 대청, 방앗간, 화장실, 창고, 수목, 연못 등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논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기 때문에 양택의 내부는 논외로 하고 양택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 조건, 즉 외형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이는 『양택십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만약 전체의 형이 좋지 않다면 그 안의 형을 얻는 법을 모두 얻어도 결국은 완전하게 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의 외형을 논하는 것이 첫째다.”<sup>6)</sup>라는 시각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양택풍수서는 중국의 양택서인 『황제택경』, 『유설』, 『영조택경』, 『양택십서』, 『양택집성』 등이며 한국의 경우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 등을 참고한다. 그리고 일본의 『작정기』에도 양택풍수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들 양택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양택사신사와 산수론

### 1) 양택사신사

풍수의 사신사는 혈을 중심으로 사방을 호위하는 현무, 주작, 청룡, 백호를 말한다. 음택풍수에서는 사신사는 산으로 구성되며, 주작의 경우 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양택풍수의 사신사는 현무는 산(또는 언덕), 주작은 연못, 청룡은 강, 백호는 도로(山川道澤)가 되는데 이는 양택풍수서의 공통적인 사신사이다.

『유설』, 『양택십서』와 『산림경제』에는 “무릇 집 왼쪽에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긴 도로를 백호라 하고 앞의 연못을 주작이라 하고 뒤의 구릉을 현무라 하는데 가장 귀한 땅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양택십서』

6) 『陽宅十書』, “若大形不善, 總內形得法, 終不全吉, 故論宅外形, 第一.”

7) 『類說』, 『陽宅十書』, 『山林經濟』, “凡宅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有汗池,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 爲最貴地.”

에서는 산천도택이라는 사신사만을 제시하지만, 『유설』과 『영조택경』에서는 산천도택의 사신사가 아니라면 흉상이 된다고 하였다.<sup>8)</sup>

산천도택 사신사는 중국의 양택풍수서와 일본의 가상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에 나타나고 있다. 산천도택 사신사는 문헌상 1907년 돈황에서 발견된 『黃帝宅經(일명 敦煌宅經)』이며, 당(唐)대의 『司馬頭陀地脉訣』과 송(宋)대의 『類說』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작정기』에는 “경에 이르기를 집의 동쪽에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고 한다. 서쪽에 큰 도로를 백호라고 하는데 남쪽 앞에 연못을 주작이라고 하는데 북쪽의 뒤 구릉을 현무라고 한다.”<sup>9)</sup> 『작정기』에는 ‘경(經)’에 이르기를 이라는 인용을 통해 산천도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은 중국의 양택풍수서를 의미한다.<sup>10)</sup>

양택사신사가 산천도택으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 현무는 몸을 감출 수 있는 거처로 산, 청룡은 물의 짐승이기 때문에 용의 거처와 아울러 승천과 하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물, 백호는 거처로서 숲과 달릴 수 있는 도로, 주작은 봉황이 대체된 것으로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평야, 밭, 연못 등을 상징한 것으로 새가 밭에 모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sup>11)</sup>

특히, 청룡이 강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흐름의 방향에 대해 『작정기』의 설명이 구체적이다. “청룡의 물은 동쪽에서 들어와 미신(未申 : 남서쪽) 방위로 나가야 하는데, 청룡의 물이 모든 나쁜 기운을 백호의 길로 씻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집은 악기(惡氣)나 악창(惡瘡)이나 마비되는 것 없이 심신이

8) 『類說』, 『營造宅經』, “屋宅舍欲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有汗池,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 為最貴地, 若無此相凶.”

9) 『作庭記』, “經に日く, 家より東に流水あるを青竜とする. 西に大道のあるのを白虎とする. 南の前に池のあるのを朱雀とする. 北後に丘があるのを玄武とする.” 『작정기』는 11세기 일본 고대어로 작성된 것으로 직접 번역이 곤란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어로 번역한 萩原義雄, 『作庭記における日本語研究』, 勉誠出版, 2011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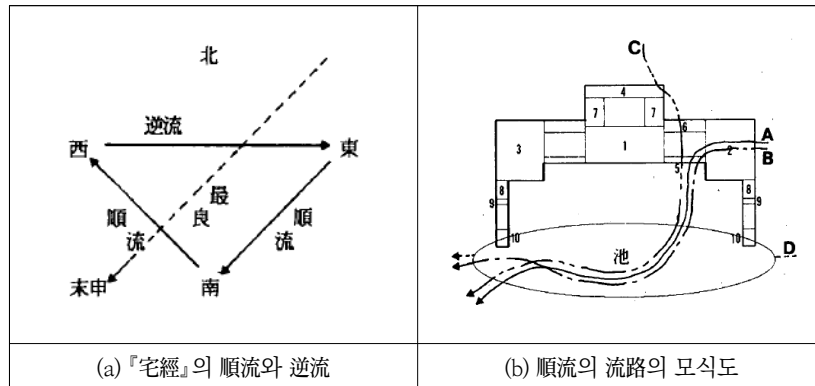
10) 劉海宇, 「秦代の「数術」簡牘順文献における私邸庭園及びその性格」, 『岩手大学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2, 岩手大学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 2014, 92쪽.

11) 田中一徳齋, 『家相方位方運』, 「地之巻」, 천인호, 「풍수사신사: 음·양택적 의미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41(4), 정신문화연구원, 2018, 205-206쪽.

안락하고 수명이 길 것이다. 연못의 수문은 남서쪽으로 두어야 한다.”<sup>12)</sup>고 하였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의 흐름이 북→동→남→남서→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순류라고 하고, 서→남→동으로 흐르는 것을 역류라고 하는데, 순류가 이치에 맞다는 의미이다.<sup>13)</sup> 이는 청룡의 강을 따라 집안의 좋지 않은 기운이 남쪽의 연못인 주작을 거쳐, 서쪽의 도로를 따라 흘러가는 것 가장 좋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순류와 역류



자료: 多夕郎美春·元貞喜·白井彦衛, 「傳統的庭園의 空間構成에 關する 研究(1)-「作庭記」에 於ける 流路를 中心に」, 『千葉大園學報』 46, 千葉大學, 1992, 62-63쪽.

양택풍수론의 특징 중의 하나가 수목(樹木)과 관련한 내용이다. 양택사 신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이를 수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12) 『作庭記』, “左より水ながれたるを、青龍の地とす。經云、(중략), 又東方よりいだして、舎屋のしたをとおして、未申方へ出す、最吉也。青龍の水をもちて、もろの悪気を白虎のみちへあらひいだすゆへなり。その家のあるじ疫氣悪瘡のやまひなくして身心安楽寿命長遠なるべしといへり。(중략) 池尻の水門は、南西へ出すべきである。青龍の水を白虎の道へ迎えて悪気を出すからである。池は常によく浚わなければならない。”

13) 多夕郎美春·元貞喜·白井彦衛, 「傳統的庭園의 空間構成에 關する 研究(1)-「作庭記」에 於ける 流路를 中心に」, 『千葉大園學報』 46, 千葉大學, 1992, 61쪽.

을 제시하고 있다. 『유설』, 『영조택경』,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및 『작정기』에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왼쪽에 흐르는 물과 오른쪽에 긴 길과 앞에 못, 뒤에 언덕이 없어 사신사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동쪽에는 복숭아나무(桃)·버드나무(柳)를, 남쪽에는 매화나무(梅)·대추나무(棗)를, 서쪽에는 치자나무(梔)·느릅나무(榆)를, 북쪽에는 능금나무(奈)·살구나무(杏)를 심으면 또한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를 대신할 수 있다.<sup>14)</sup>고 하였다.

일본의 『작정기』에는 수목과 아울러 식재할 나무의 수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청룡을 대신하여 버드나무(柳) 9그루, 백호를 대신하여 개오동나무(楸) 7그루, 주작을 대신하여 계수나무(桂) 9그루, 현무를 대신하여 편백나무(桧) 3그루를 심으면 된다고 하였다.<sup>15)</sup>고 하였다.

『영조택경』과 『산림경제』에는 “중문에 회화나무(槐)가 있으면 삼대가 부귀하고 집 뒤에 느릅나무(榆)가 있으면 모든 귀신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sup>16)</sup>고 하였다. 회화나무는 괴(槐)는 나무 목(木)에 귀신 귀(鬼)가 합쳐진 글자로서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으며 집에 심으면 가문에 큰 인물이나 큰 학자가 나온다고 하여 길상목(吉祥木)이라 하였다. 느릅나무는 『제민요술』에는 “북쪽에 느릅나무 9그루를 심으면 양잠에 좋고, 농사에도 좋다.”<sup>17)</sup>고 하여 수목이 풍수뿐 만 아니라, 민속과도 연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양택 오성론

양택택지론은 집모양을 오성(五星)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택집성』에서

14) 『類說』, “不然種樹, 東種桃柳, 南種梅棗, 西種梔榆, 北種杏.” 『營造宅經』, “不然種樹, 東種桃柳, 南種梅棗, 西種梔榆, 北種杏.” 『山林經濟』, “凡宅, 若無左流水右長途, 前汙池後丘陵, 則東種桃柳, 南種梅棗, 西種梔榆, 北種柰杏, 亦可代靑龍白虎, 朱雀玄武.”

15) 『作庭記』, “經に曰く, 家より東に流水あるを靑龍とする. もしその流水がなければ, 柳を九本植えて靑龍の代りとする. 西に大道のあるのを白虎とするもしその大道がなければ, 楸(キササゲ)七本をうえて白虎の代りとする. 南の前に池のあるのを朱雀とする, もしその池がなければ, 桂九本を植えて朱雀の代りとする. 北後に丘があるのを玄武とする, もしその丘がなければ, 桧を三本植えて玄武の代りとする.”

16) 『營造宅經』, 『山林經濟』, “中門有槐, 富貴三世. 宅後有榆, 百鬼不敢近.”

17) 『齊民要術』, 「種榆」, 「白楊第四十六」, “術曰, 北方種榆九根, 宜蠶桑, 田穀好.”

는 “무릇 집이 낮고 평평한 것을 수형이라 하고, 집이 높이 솟은 것을 목형이라 하며, 집의 중간이 높고 양쪽 처마가 낮은 것을 화형이라 하며, 집의 앞과 뒤에 두 개의 행랑이 있는 것을 금형이라 하며, 집의 위는 병풍같고 아래로 중심을 덮는 것 같으면 토형이라 한다.”<sup>18)</sup>고 하였다.

『양택십서』에는 오성(五星)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목·금·토 사성의 용이 이것이 집터를 이루면 마침내 길하고 이롭다. 오직 화성만은 마땅치 않은데 단지 마름질하여 음택으로 만든다.”<sup>19)</sup> 즉 수·목·금·토성의 경우 집터로 길하지만 오직 화성의 경우 집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음택풍수서에서도 오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심부』에서는 “오성은 금목수화토인데 산의 모양이 단정하고 둥글면(瑞圓) 금성, 우뚝 솟았으면(聳直) 목성, 꺾이고 굽었으면(曲) 수성, 뾰족하고 예리하면(尖銳) 화성, 네모나면 평평하면(方平) 토성으로 이것이 정체다.”라고 하였다.

오성의 모양에 따른 소응을 『지학』에서는 목형은 어질고 귀한 대종산(大宗山)이며, 토형은 제후와 왕이 나올 수 있고, 금형은 큰 무인이 나타나고, 수형은 청렴한 관리가 요직에 오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형은 스스로 맹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대혈(大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氣)만 취해야 하며 그 형(形)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4개의 산은 모두 높은 산꼭대기에서도 혈을 맺을 수 있지만 화성만은 그렇지 못하여 다만 도를 닦는 도사나 부처를 믿는 승려가 숨어 지낼 만 하다고 하였다.<sup>20)</sup>

『설심부』가 산의 모양으로 오성을 분류하였다면, 『양택집성』은 집의 지붕과 전체 모양으로 오성을 분류하였는데 기본적인 모양은 동일하다. 양택의 오성에 있어서 『양택집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 『陽宅集成』, 「屋形法」, “凡屋低而平者水形, 高而聳木形, 中高而兩頭低者火形, 前後有兩廂者金形, 上有推照, 下有掩心者土形.”

19) 『陽宅十書』, “水木金土四星龍, 此作住基終吉利, 惟有火星甚不宜, 只可剪載作陰地.”

20) 沈鏞 著, 허찬구 역, 『地學』, 육일문화사, 2001, 14-124쪽. 해당부분 참조 요약.

무곡 금성의 집은 저절로 부귀하게 된다. 금성의 집 뒤 두 결재가 높고 대청이 있으면(捲翅)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결국 재가 되어 버린다. 탐랑 목성의 집은 사람이 부귀하며 문장을 크게 떨친다. 목성의 집이 두 건 모양으로 집의 용마루가 없으면(垂翅) 미치광이나 풍질에 걸려 일찍 죽는 사람이 많다. 수형의 집이 격에 맞으면 재물이 나날이 늘어난다. 수형의 집이 쓸어져 허물어진 듯 하면 만 이랑의 논과 밭이 모두 없어진다. 화형의 집은 전면이 넓고 후면은 뾰족한데, 기울어졌으면(拖尾) 사람이 재물이 있어도 즉시 재앙이 된다. 비록 격에 맞더라도 패절하는 것을 오랫동안 면할 수 없다. 거문 토형의 집은 부귀가 길고 또 오래간다. 높낮이가 기울어지거나 파였다면 외로운 과부가 남자를 들인다.<sup>21)</sup>

이상의 음·양택서 공통으로 오성 중 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수, 목, 금, 토성의 경우는 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화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는 결국 음택에서는 화형의 산에 혈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으며, 양택에서는 특히 화형의 집모양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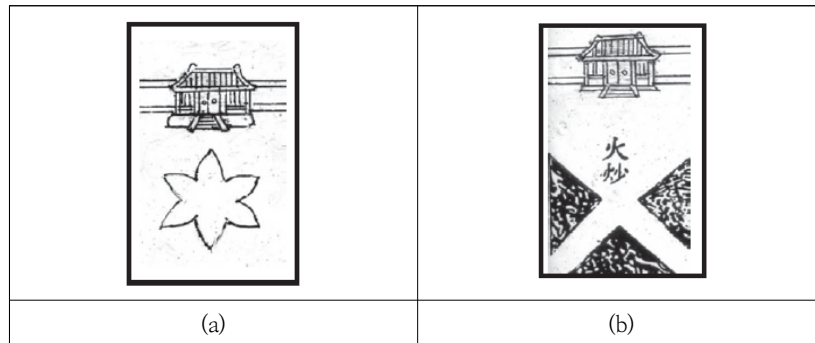
음택풍수서에서의 오성은 대체로 혈 뒤의 산 즉, 주산의 모양을 중요시하며 아울러 조산의 모양도 살핀다. 그러나 양택풍수서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앞, 즉 조산의 모양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화형과 관련된 사의 존재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택십서』에는 <그림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명당에 불꽃 모양의 산(廉貞)이 있다면, 단언하여 말하면 안질에 걸려 시력이 나빠진다. 집안에 기질이 생겨 쇠약하고 고달프게 사망하고, 장래는 죽음에 이른 사람으로 집안이 가득 차게 된다. (b) 집 앞에 흉한 사가 이와 같고, 왼쪽에 불꽃 모양의 사가 집을 향해 온다면, 형이 필시 사망한다. 오른쪽에서 불꽃 모양의 사가 집을 향해 온다면 동생이 필

21) 『陽宅集成』, 「屋形法」, “武曲金形, 家道自然富貴, 金星捲翅, 錢財廣積成灰. 貪狼木形, 富貴人文昌大, 木星垂翅, 顛狂風疾多妖. 水形合格, 錢財日進如流, 掃蕩水形, 萬頃田莊盡廢. 火形拖尾, 人財立見災殃, 縱然合格, 敗絕久而不免. 巨門土形, 富貴悠而且久, 高低傾陷, 孤寡必然入招.”

시 사망한다. (집의) 정면으로 쏘는 듯한 모양의 사가 둘 사이에 있기 때  
문이다.<sup>22)</sup>

〈그림 2〉 집 앞 화성의 사



자료: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불꽃 모양의 산이란 오성에서는 화성이고, 구성(九星)에서는 염정성(廉貞星)이다. 『감룡경』에서는 염정성이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대혈(大穴)을 생성하고, 다른 산들을 만들어내는 점도 있다<sup>23)</sup>고 본 반면, 양택풍수서에서는 대부분의 화성을 불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 3) 양택산수론

먼저 산의 형국에 대해 집 뒤와 앞에 형국으로 흉한 모양이 있을 경우는 흉한 것으로, 길한 모양이 있을 경우는 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양택십서』에는 “무릇 집 뒤에 박각산(拍脚山)이 보이면 음란한 여자가 생겨 승도와 간통한다. (중략), (집 앞의) 명당에 뒤집어진 치마와 같은 산이 있으면 집안에는 음란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중략), 무릇 집 문 앞에 탐두산

22) 『陽宅十書』, (a) “若見明堂似廉貞, 斷定眼疾少光明. 家生氣疾虛勞死, 將來致死滿門庭.” (b) “面前凶沙若有此, 左火妙來兄必死. 右火冲身弟必亡, 當面尖射中此是.” 여기서 (a), (b)는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임.

23) 『撼龍經』, 『廉貞』, “高山頂上石嵯峨, 傘摺犁頭裂絲破. 只緣尖焰聳天庭, 其性炎炎號火星. 起作龍樓并寶殿 貪巨武曲因此生.”

(探頭山)이 있으면 사철 도둑을 막아야 하고 만약 집 뒤에 있으면 군적(軍賊)이 나온다.”<sup>24)</sup>

박각산이란 산기슭에 박자목처럼 양다리가 있는 산으로 마치 여자가 다리를 벌린 듯한 모양의 산이다. 치마가 뒤집어진 산이란 여자의 치마가 뒤집어져 속이 보인다는 의미로 이는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이 집 뒤나 앞에 있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두산이란 집안을 엿탐하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월견(越見) 또는 규봉(窺峯)이라고도 한다. 규봉은 엿보는 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집 앞에 규봉이 있으면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오고, 집 뒤에 있으면 집안에서 도둑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반면 “탁필(卓筆)이나 아기(牙旗) 형태가 있고 이것이 집의 양방위(남쪽)에 높이 솟아 있다면 꺼리지 않는다. (중략), 집 문 앞에 (조산이) 평평하거나 둥근 산이 조산이면 주인에게 길하다.”<sup>25)</sup>고 하였다. 탁필은 붓 모양의 산을 의미하고 아기는 군대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깃발 모양의 산을 의미한다. 탁필은 오성에서는 목성이고, 구성에서는 탐랑성으로 모두 길한 모양이다. 그리고 붓모양이기 때문에 학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기는 무관으로의 입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안산이 둥근모양이면 길하다는 것은 오성에서 금성(金星)을 의미한다.

물과 관련하여서는 길한 물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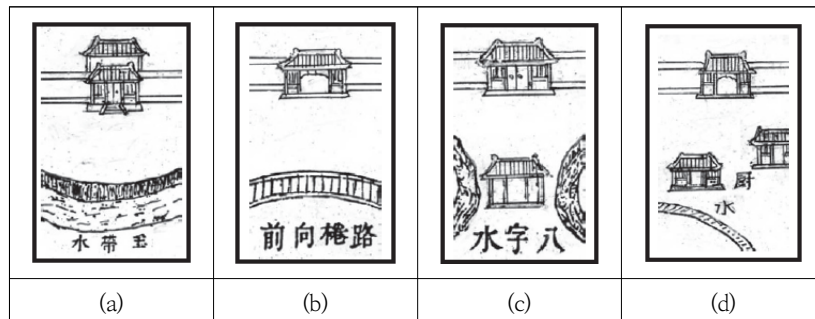
(a) 문 앞에 옥대수가 있다면 고관이 필시 용이하게 나온다. 대대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배출되어 명성을 얻고 출세하여 부귀를 얻고 가문의 명성을 빛내게 된다. (b) 문 앞에 물길이 집을 향해 감아 말듯이 앞으로 흐른다면 집안에는 음란한 것이 말할 수도 없다. 고아와 과부, 요절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치고, 매사의 일에 실패하며 집안에는 불이 나고 또 역병이 든다. (c) 집 문 앞의 물이 팔자로 흐르면 논과 밭을 다 팔고 고향을 떠난다. 음란하여 이 집에는 중매인이 필요치 않다. 노인과 젊은

24) 『陽宅十書』, “凡宅屋後見拍脚山, 出淫婦 通僧道. (중략), 明堂返轉似裙頭, 家中淫亂不知羞. (중략), 凡宅門前有探頭山, 四時防盜, 若在屋後出軍賊之人.”

25) 『陽宅十書』, “倘有卓筆及牙旗, 聳在外陽方無忌. (중략), 凡宅門前朝平圓山 主吉”

이는 집과 조상을 떠난다. (d) 문 앞에 반대로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물 길이면 반드시 그 집 주인은 첩을 물리치고 아내와도 이별한다. 절름발이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시집간다. 순수라면 음란하고 주인은 생이별을 하게 된다.<sup>26)</sup>

〈그림 3〉 『양택십서』의 물길의 길과 흉



자료: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그림 3〉의 (a)와 같은 물을 옥대수(玉帶水)라 한다. 옥대란 관료들이 차던 허리띠를 의미하는데, 옥대수란 혈을 중심으로 둥글고 감돌아 나가는 물을 말한다. 이러한 물을 오성수(五城水)에서는 금성수(金城水)라 하며, 또한 요대수(腰帶水), 전신수(纏身水) 등으로도 불려진다. 『인자수지』에서는 “요대수는 물이 둘러 안은 것이 기운을 묶은 것과 같다. 금성수이니 가장 길하다. (중략), 금성수는 둥글게 몸을 감싸면서 도는 것이니 가장 귀하다.”<sup>27)</sup>고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림 3〉의 (b)이다. 이러한 물을 『인자수지』에서는 반신수(反身水)라고 한다. “반신수란 혈 앞에 도달하기 전에 거꾸로 나가

26) 『陽宅十書』, “(a)門前有玉帶水, 高官必定容易起. 出人代代讀書聲, 榮顯富貴耀門閭. (b)門前水路捲向前, 家中淫亂不堪言. 孤寡少亡傷敗事, 家中動火又瘋纏. (c)前水分八字圖, 賣盡田園離鄉土. 淫亂其家不用媒, 定出長小離房祖. (d)前面水路及返飛, 定主退妾又離妻. 癩跛孤兒隨母嫁. 順水淫亂主生離.” 여기서 (a), (b), …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27) 『人子須知』, 『論水形勢』, “腰帶者, 繞抱如束帶也 即金城水, 最吉.” 『人子須知』, 『論水城』, “金城金星水城, 彎曲抱身, 極吉.”

는 것이다. 배성수와 비슷한데 흉함은 더욱 심하다. 재산이 기울어지고 떠도는 거지 생활을 하다 마침내 절멸한다.”<sup>28)</sup>고 하였다.

물은 집이나 혈 뒤에서 나누어져 집이나 혈 앞에서 합쳐져야 한다. 그런데 <그림 3>의 (c)와 같이 집 앞에서 합쳐지지 못하고 두 방향으로 각기 달리 흘러가는 것이 팔자수(八字水)로 재물이 흩어진다고 한다. <그림 3>의 (d)와 같은 경우를 『인자수지』에서는 할각수(割脚水)라고 한다. “할각수는 혈에 남은 기운이 없고 물이 다리를 두드리며 베고 나가는 것으로 진짜 혈이 아니다.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괴로움이 오래가고 절멸한다.”<sup>29)</sup>고 하였다.

특히 집에서 빠져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유설』과 『양택십서』에는 “대문 아래로 물이 나가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sup>30)</sup> 『영조택경』에는 “문 안에서 물이 나가면 재산이 흩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sup>31)</sup>고 하였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하므로 옥대수는 재물이 모이는 곳이지만, 팔자수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물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문을 통해 물이 빠져나간다면 이 역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양택십서』에는 “무릇 집 문 앞에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그 소리가 슬프게 속삭이면 주인의 재산이 쇠한다.”<sup>32)</sup>고 하였다 『장서』에는 주작을 산이 아니라 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물이 세차게 흐르면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와 같아 꺼린다고 하였다.<sup>33)</sup> 마찬가지로 『양택십서』에서는 집 앞에 물이 흐르는 것이 슬프게 속삭이듯 하면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풍수의 원리가 ‘바람을 간직하고 물을 얻는(藏風得水)’ 것인 만큼 양택풍

28) 『人子須知』, 「論水形勢」, “反身者, 水到穴前反去也. 有似於背城水, 其凶尤甚. 主傾敗產業如洗, 流離, 乞丐, 以致滅絕.”

29) 『人子須知』, 「論水形勢」, “割脚者, 穴無餘氣 (중략) 若水扣脚洗割, 便非真穴, 主貧寒孤苦, 久而絕滅.”

30) 『類說』, 『陽宅十書』, “門下水出, 財物不聚.”

31) 『營造宅經』, “門中水出, 財散冤屈.”

32) 『陽宅十書』, “凡宅門前見水聲悲吟, 主退財.”

33) 『葬書』, 「外篇」, “以水為朱雀者, 衰旺系乎形應, 忌乎湍激, 謂之悲泣.”

수서에서도 산과 물의 조화가 중요시 되고 있다. 『양택십서』에서는 “택지는 산맥을 따라서 있고 거주하는 곳은 평평한 들판에 있어 앞과 뒤에 물이 환포하면 귀하고 좌우의 도로가 역시 그러하면 마찬가지다. 다만 물이 도리어 뛰어드는 듯한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sup>34)</sup> “사람의 거처는 마땅히 대지, 산하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 내맥과 기세는 사람의 화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sup>35)</sup>고 하였다.

그리고 『산림경제』에서는 “생활의 방도를 세우는데 먼저 지리를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리는 물과 땅이 어울려져 통하는 곳이 으뜸이다. 그래서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있으면 훌륭한 곳이다. 또한 넓고 큰 곳이 어야 하나 [수구는] 좁아야 한다. 넓고 크면 재물과 이익이 나올 수 있고, [수구가] 좁아야 재물과 이익이 모일 수 있다.”<sup>36)</sup>고 하였다. 그리고 『양택십서』에는 “또한 수구는 긴밀하게 수습되어야 하는데 너무 좁아 작은 그릇처럼 된 것도 마땅하지 않다.”<sup>37)</sup>고 하였다.

이상은 양기와 양택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양택은 산과 물의 조화, 내맥과 기세가 중요하며, 양기(마을)는 안이 넓고 크고 수구(水口)는 좁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지점을 수구라고 하는데 수구가 관쇄(關鎖)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수구는 물길을 의미하고 물길은 바람길이 된다. 따라서 수구가 넓으면 마을 안의 기운이 같이 빠져나가지만, 수구가 좁으면 생기가 보존된다고 본 것이다. 둘째, 물길은 풍수에 재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구가 좁아야 재물이 보존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제』에서 마을의 터가 넓으면 생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재물과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수구가 좁아야 이 재물과 이익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인다고 본 것이다.

34) 『陽宅十書』, “地或從山, 居或平原, 前後有水環抱貴, 左右有路亦如然, 但遇退跳必須忌.”

35) 『陽宅十書』, “人之居處, 宜以大地山河爲王, 其來脈氣勢, 最大關係人禍福, 最爲切要.”

36) 『山林經濟』, 「卜居」, “治生, 必須先擇地理, 地理, 以水陸並通處爲最, 故背山面湖, 乃爲勝也, 然亦須寬大, 又要緊束, 蓋寬大, 則財利可出, 緊束, 則財利可聚也.”

37) 『陽宅十書』, “更須水口收拾緊, 不宜太迫成小器.”

### 3. 충살의 회피와 외형길흉론

#### 1) 충살의 회피

양택풍수서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산과 물, 그리고 도로가 찌르는 것 즉, 충(沖)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집을 산이나 근처의 다른 집이 찌르는 경우와 둘째, 물이나 도로가 찌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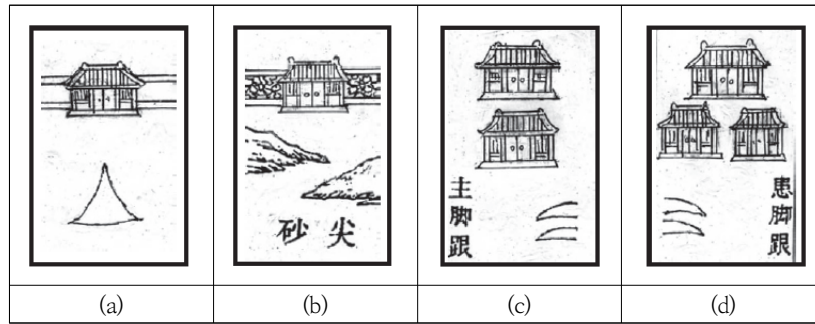
첫째, 『양택십서』와 『영조택경』에는 공통적으로 “산 능선이 찌르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sup>38)</sup>고 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양택십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판단한다.

(a) 집 앞 명당에 삼각형 모양의 산이 있다면, 눈이 먼 자손으로 인해 곡소리가 나게 된다. (혈통은) 외아들로만 이어져 가족은 거의 망하고 기가 통하지 못하는 병에서 이 집은 벗어날 수가 없다. (b) 이 집 문 앞에 만약 뾰족한 사가 보인다면 군대에 가던지 도적이 밤에 집 주위를 돌아 다닌다. 출중한 사람도 안질에 걸리고 패역하며 형제는 따로 살고 노인은 굶어 죽는다. (c) 청룡에 2개의 산이 이와 같다면 이 집의 수양딸은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 데릴사위와 양자가 집을 파산시키고, 집에서 군인이 나오지는 않으면 도둑이 된다. 물이 역수면 길하지만 교활한 사람이 나오고 물이 순수이면 흥하여 성을 바꾸고 생활에 재앙이 있다. (d) 백호에 2개의 산이 이와 같다면 그 집의 부녀가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 2개의 성씨의 가족이 모여 살아가고 불효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욕한다.<sup>39)</sup>

38) 『陽宅十書』, 『營造宅經』, “不居山脊衝處.”

39) 『陽宅十書』, “(a)若見明堂三個角, 瞎眼兒孫因此哭. 單傳人口多少亡, 氣痛其家常不脫. (중략), (b)門前若見此尖沙, 投軍做賊夜行家. 出人眼疾忤逆有, 兄弟分居餓死爺. (중략), (c)青龍若有二山隨, 其家養女被人迷. 招郎養子其家破. 不出軍時有匠賊. 逆水為吉出人狡猾. 順水為凶換姓過活. (중략), (d)白虎若見二山隨, 定教婦女被人迷. 二姓之家來合活, 忤逆人家媳罵姑.” 여기서 (a), (b), ...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그림 4〉 산의 총살



자료: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그림 4〉에서 (a)는 삼각형 모양의 산이 집을 찌르는 모양이고, (b)는 좌우 2개의 사가 찌르는 모양이며, (c)는 청룡쪽에서, (d)는 백호쪽에서 2개의 뾰족한 사가 찌르는 모양으로 모두 불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집의 문 앞에 다른 가옥이 화살처럼 쏘는 것은 안 된다. 주인이 자손을 낳아도 자손이 패역 불효한다. 담장의 머리가 대문을 쏘는 듯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른다.”<sup>40)</sup>고 하였다. 따라서 산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택의 뾰족한 부분도 해당 주택을 향해 쏘는 듯 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둘째, 물과 도로가 찌르는 것도 기피한다. 『영조택경』에는 “물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중략) 물이 문을 찌르면 집안이 흩어지고 병어리가 나온다.”<sup>41)</sup>고 하였다. 그리고 『양택십서』에서는 “집에 물길이나 교량이 사방으로 교차하여 찌르면 자손이 겁이 많고 허약해지고 주인에게 길하지 않고 이롭지도 않다.”<sup>42)</sup> 그리고 『산림경제』에서는 “집을 향해 곧바로 오는 길을 충파(衝破)라 하는데, 반드시 빙 돌아서 굽어져야 한다. 만약 집안의 물이 왼쪽으로 거슬러 흐르면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집안의 물이 오른쪽으로 거슬러 흐르면 왼쪽으로 들어와야 하며 곧바로 상충(相衝)이

40) 『陽宅十書』, “凡宅門前不許, 人家屋箭來射, 主出子孫, 忤逆不孝. (중략) 牆頭衝門, 常被人論.”

41) 『營造宅經』, “不居正當水流處. (중략) 門被水射, 家散人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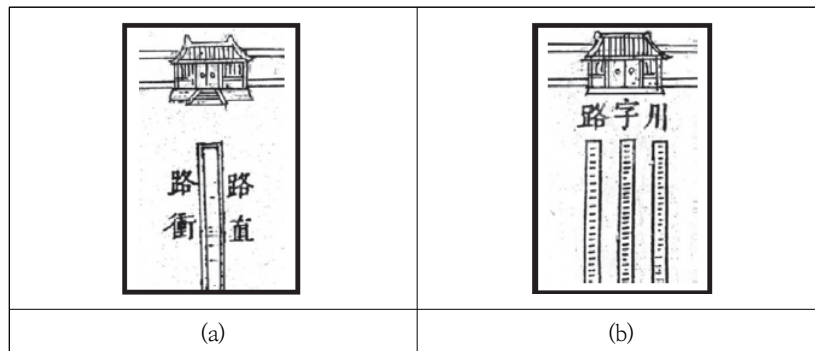
42) 『陽宅十書』, “凡宅或水路, 橋梁, 四面交衝者, 使子孫怯弱, 主不吉利.”

되는 것은 절대로 꺼린다.”<sup>43)</sup>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설심부』에서 “천할전사 네 개의 흉함은 피해야 한다.”<sup>44)</sup>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천(穿)이란 물이 혈을 뚫는 듯이 들어오는 것이고, 할(割)이란 물이 혈을 베듯이 들어오는 것이며, 전(箭)이란 물이 혈을 향해 화살처럼 들어오는 것이고, 사(射)란 물이 혈을 쏘듯이 들어오는 것이다.

양택풍수서에서는 물과 도로를 동일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물이 집을 찌르는 듯한 것도 꺼리지만, 도로가 집을 찌르는 듯한 것도 꺼린다. 『영조택경』과 『양택십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집은 도로가 찌르는 입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중략) 교차하는 도로가 대문을 사이에 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많은 도로가 서로 집을 쏘는 듯 하면 집안에 노인이 없다.”<sup>45)</sup>고 하고 있다.

〈그림 5〉 도로의 충살



자료: 『陽宅十書』

43) 『山林經濟』, “當面直來之路, 謂之衝破. 必須盤旋曲轉若宅水, 倒左則, 從右畔入, 宅水倒右, 則從左畔入, 切忌直衝.”

44) 『雪心賦』, 「論水法」, “穿割箭射, 四凶合避.”

45) 『營造宅經』, 『陽宅十書』, “凡宅不居當衝口處, (중략), 交路夾門, 人口不存, 衆路相衝, 家無老翁.”

그리고 <그림 5>의 (a)와 같은 경우는 이 집에 만약 큰 도로가 찌른다면 이 집에는 노인이 없다. 병에 걸려 탈이 남은 사람이 참으로 많아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화살이 사람을 찢러 흉하다고 한다. 그리고 (b)와 같이 문 앞에 천자(川字) 모양의 도로가 지난다면 재물이 깨어지고 매년 송사에 시달린다. 만약 직선으로 쏘는 듯한 것이 명당에서 보이면 3개의 화살이 세 아들을 찢러 도리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sup>46)</sup>라고 하였다.

물 뿐만 아니라 도로가 충할 경우 흉하다는 것은 『동림조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음택을 선정하고 양택을 세울 때는 문을 열거나 들어오는 길이 길한 방위라야 길하다. 대개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장소이다. 또한 찢르고 깨는 것을 기피하는데 음택이나 양택이 그러하다면 편안한 곳이 아니다. 사방에서 도로가 교차하면 사람이 상하고 사망한다. 도로가 우물 정(井)자 같으면 자손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다. 큰 도로가 곧장 들어와서 음택이나 양택을 찢르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 두 개의 도로가 가로로 교차하면 이름하여 강시(扛屍)라고 하여 호랑이에 게 물리거나 형벌을 받는다.<sup>47)</sup>

『산림경제』에서는 “사신사의 등마루 위에 십자(十字) 모양의 길이 있거나, 명당의 가운데 정자(井字) 모양의 길이 있으면 모두 꺼린다. 2개는 가로로 나고 하나는 곧게 난 길을 이름하여 강시(扛屍: 집터를 가릴 때 凶煞이 들어 끼리는 자리)라고 하는데 흉하다. 4개의 길이 집을 감싸고 있으면 흉한데 그 증험이 가장 잘 나타난다.”<sup>48)</sup>고 하였는데, 『동림조담』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46) 『陽宅十書』, “此屋若有大路冲, 定主家中無老公. 殘疾之人真是有, 名為暗箭射人凶. 門前有路川字行, 破財年年官事興. 若然直射見明堂, 三箭三男死却身.”

47) 『洞林照膽』, 「道路篇」, “凡安憤立宅, 開門入路, 由吉方即吉. 蓋路者, 人所履踐之處. 亦忌衝破, 則塚宅, 有不安矣. 四神, 有交路者, 傷亡. 如井字者, 子孫貧窮疾病. 大路直來, 衝塚宅則難住, 兩路交橫, 名曰扛屍. 主虎傷刑徒.”

48) 『山林經濟』, “四獸脊上, 有十字樣路, 明堂中心, 有井字樣路皆忌. 兩橫一直, 名曰扛屍凶. 四路圍宅凶, 其驗最著.”

그래서 『양택집성』에서는 “무릇 집의 사면에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 수(囚)자 모양이면, 사람은 재물이 왕성하지 않고, 심하면 패절한다.”<sup>49)</sup>고 하였다. 즉, 집 주위의 도로 사면에 있으면 사람(人)이 갇힌(口) 모양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陽宅十書』에는 “남쪽에서 큰 도로가 대문을 찌르는 듯하면 빨리 큰 돌을 취하여 진압하여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후손들의 곡 소리가 빈번할 것을 면할 수 있다.”<sup>50)</sup>고 하였다. 중국의 푸젠성(福建省) 등에는 ‘태산석감당(泰山石敢當)’이라는 글자를 돌에 새겨 도로와 집이 충돌하는 곳에 세워두면 도로의 살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앙은 오키나와로 전래되어 오키나와 각지에는 도로살을 진압하기 위한 ‘석감당(石敢當)’을 세워 이를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sup>51)</sup>

## 2) 외형 길흉론

양택풍수서의 외형론은 집을 중심으로 한 외부조건과 집 자체의 전체적인 모양 및 전후좌우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유형이 있다.

첫째, 집의 동쪽과 서쪽의 높이 차이에 따라 길흉을 판별한다. 먼저 『유설』, 『양택집서』, 『영조택경』 및 『임원경제지』에서는 “무릇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으면 부귀하고 영웅호걸이 나온다.”<sup>52)</sup>고 하였다. 그리고 『산림경제』에서는 “무릇 주택에 있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면 생기(生氣)가 높은 터인데, 『거가필용』에는 이 내용이 없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면 부유(富)하지는 않지만 귀한 호걸이 나며, 『거가필용』에는 ‘부귀(富貴)하고 호걸(雄豪)이 나온다.’<sup>53)</sup>고 하였다.

49) 『陽宅集成』, 「屋形法」, “凡屋四面, 有通繞路, 爲囚字形, 主人財不旺, 甚則敗絕.”

50)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南來大路正衝門, 急取大石宜改鎮, 免教後人哭聲頻.”

51) 이에 대해 상세한 것은 천인호, 「오키나와 석감당의 풍수적 해석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연구』 79. 한양대 동아시아연구소, 2019, 117-144쪽 참조.

52) 『類說』, 『陽宅十書』, 『營造宅經』, 『林園經濟志』, “凡宅東下西高, 富貴英豪(富貴雄豪), ” ( )은 『유설』, 『영조택경』, 『임원경제지』의 원문임.

53) 『山林經濟』, “凡宅, 東高西低, 生氣隆基, 必用無此. 西高東低, 不富且豪, 必用曰, 富貴雄豪.”

이는 집을 중심으로 절대방위로 보아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으면 길하다는 것이다. 『산림경제』에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도 생기가 높은 터’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중국의 『거가필용』에는 없다고 하여, 『산림경제』에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동쪽과 서쪽의 관계가 아니라 집의 방향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 차이에 따라 길흉을 판별한다.

『양택십서』와 『영조택경』에서는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으면 장남이 번창한다. 양택은 길하지만 음택은 그렇지 못하다. 오른쪽이 낮고 왼쪽이 높으면 음택은 호걸이 날 정도로 넉넉하지만, 양택은 길하지 못하여 주인은 필히 가출한다.”<sup>54)</sup>고 하였다.

상대방위로 보았을 때 집을 중심으로 왼쪽 산은 청룡이 되고, 오른쪽 산은 백호가 된다. 『동림조담』에는 “좌청룡은 진(震:동쪽)의 자리이니 진이란 남자의 자리이다. 우백호는 태(兌:서쪽)의 자리이니 태란 여자의 자리이다.”<sup>55)</sup>고 하였다. 즉, 청룡은 남자, 백호는 여자의 자리라는 의미이다.

『양택십서』와 『영조택경』에 의하면 ‘청룡이 낮고 백호가 높으면 장남이 번창하고 양택에 길하다’는 것은 음택풍수서의 해석과는 다르다. 그러나 ‘백호가 낮고 청룡이 높으면 음택에 길하다는 것’은 음택풍수서의 해석과 동일하다.

셋째, 집의 방향을 중심으로 집의 앞과 뒤의 높이 차이에 따라 길흉을 판단한다. 『유설』, 『양택십서』, 『영조택경』 및 『산림경제』에서는 “무릇 주택은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영웅호걸이 나오고,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집안의 질서가 없어진다.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후손이 끊어지며,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면 가축이 번성한다.”<sup>56)</sup>고 하였다. 아울러 『영조택경』에는 추가적으로 “무릇 집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승려, 고아, 과부가 나오고 남자를 계

54) 『陽宅十書』, 『營造宅經』, “左下右昂, 長子榮昌, 陽宅則吉, 陰宅不彊(陰宅不強). 右下左高, 陰宅豐豪, 陽宅非吉, 主必奔逃.” ( )은 『영조택경』 원문임.

55) 『洞林照膽』, 「龍虎篇」, “左爲龍位震, 震者, 男位也. 右位虎爲兌, 兌者, 女位也.”

56) 『類說』, 『陽宅十書』, 『營造宅經』, 『山林經濟』 “凡宅前後高, 世出英豪, 前高後低, 長功昏迷, 前高後下, 絕無門戶, 後高前下, 多足牛馬.”

으르게 만들고, 여자를 음란하게 만든다.”<sup>57)</sup>고 하였다.

양택풍수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절대방위가 아닌 주택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라는 상대방위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풍수에서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는 절대방위이다. 그러나 후현무, 전주작, 좌청룡, 우백호는 상대방위인데 양택풍수서에는 상대방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집의 향은 반드시 남향이 아닌 어떤 향이라도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으며,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넷째, 집을 포함한 땅의 모양이 어느 방위가 길고 짧음에 의해 길흉을 판단한다. 『유설』, 『양택십서』, 『영조택경』 및 『산림경제』에서 집의 땅모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기사가 있다.

무릇 집의 땅모양이 묘(동쪽)·유(서쪽) 방위가 부족한 곳은 살 만하지만, 자(북쪽)·오(남쪽)이 부족한 곳에 살면 크게 흉하다. 자(북쪽)·축(북북동쪽)이 부족한 곳에 살면 구설수에 오른다. 남북으로 길고 동쪽으로 좁으면 길하고,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으면 처음에는 흉하지만 나중에 길하다.<sup>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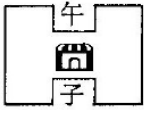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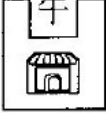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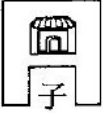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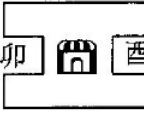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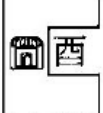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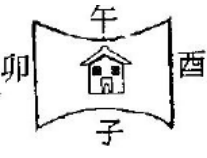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택집성』에 <그림 6>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a) 자오(子午:남북) 방위의 땅이 부족하면 뜻하지 않은 송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거주하면 질병으로 재앙이 있고 관리들에 대한 원망이 매년 있다. (b) 오(午:남)방위의 땅이 부족하면 부유하지만 구설이 있다. (c) 자(子:북)방위의 땅에 결함이 있으면 사람이 거주하기는 필시 흉하다. (d) 동서의 땅이 부족하면 사람이 거주하기는 필시 보통이다. (e) 동쪽 묘(卯)방위의 땅이 부족하면, 먹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여 굶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f) 유(酉:서쪽)방위의 땅이 부족하면, 거주하는 땅으로는 크게 흉하다. (g) 남북이 좁으면 흉하다. (h)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으면 부귀하며 자손이 많다.<sup>59)</sup>

57) 『營造宅經』, “宅若前高後下, 法主, 孤兒, 寡婦, 令男子懶惰, 使女子淫奔.”

58) 『類說』, 『陽宅十書』, 『營造宅經』 및 『山林經濟』, “凡宅地形, 卯酉不足, 居之自如. 子午不足, 居之大凶. 子丑不足, 居之口舌. 南北長東西狹吉, 東西長南北狹, 初凶後吉.”

〈그림 6〉 『양택집성』의 양택의 길과 흉

구분	형상		
자(子) 오(午) 부족			
	(a) 子午(남북) 부족	(b) 午(남)부족	(c) 子(북)부족
묘(卯) 유(酉) 부족			
	(d) 卯酉(동서)부족	(e) 卯(동)부족	(f) 酉(서)부족
동서 남북			
	(g)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다.	(h)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다.	

자료: 『陽宅集成』, 「基形法」

이는 동서로 부족한 곳은 살만하지만 남북으로 부족한 곳은 흉하는 의미이다. 또한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으면 길하지만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으면 반길반흉이 된다는 것이다.

59) 『陽宅集成』, 券一, 「基形法」, “(a)子午地不足, 不時爭訟起, 人居多疾厄, 官非年年有. (b)午地不足, 富有口舌. (c)子方地陷缺, 人居住必凶. (d)東西地不滿, 人住必平常. (e)東方卯地不滿, 食不充飢衣不煖. (f)酉地不足, 居地大凶. (g)南北狹凶. (h)南北長, 東西狹, 主富貴, 多子孫.” 여기서 (a), (b), …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4. 현대적 의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택풍수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 사신사가 혈을 중심으로 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공간이라면, 양택 사신사는 남쪽이 연못, 들판 등으로 개방된 공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청룡의 강은 수상교통, 백호의 도로는 육상교통, 남쪽의 평야, 밭 등은 곡식재배와 연못은 필요한 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활공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 입지로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sup>60)</sup>

현대 부동산학과 도시학에 있어서도 전면의 개방이라는 전망, 즉 뷰(view)가 입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적 연구결과이다. 전면에 호수가 전개될 경우 도시구조와 입지선택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게 된다.

윤정중·유완<sup>61)</sup>은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산, 하천, 근린공원에 대한 조망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산 조망을 제외하고 하천, 근린공원 조망이 주택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는데 하천 > 공원 > 산의 순서였다 김황중·최형석<sup>62)</sup>은 서울과 부산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망의 속성변수를 산, 강·하천, 공원, 바다, 시가지 등 5개로 구분하고 각 조망 유형별 조망차폐율에 따라 추가지불의사를 결정하는 선택실험법으로 측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강·하천, 공원조망의 추가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산과 같이 앞이 닫힌 공간보다는 하천, 근린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 대한 조망이 주택가격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의 양택에서는 산으로 둘러싸인 음택사신사 보다는 양택의 사신상응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 된다.

특히 북쪽 산, 남쪽 연못인 배산면수(背山面水)일 경우 겨울철에는 북쪽

60) 천인호, 앞의 논문, 2018, 200-201쪽.

61) 윤정중·유완, 「도시경관의 조망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67-83쪽.

62) 최형석·김황중, 「경관조망의 유형과 조망차폐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1),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109-125쪽.

의 차가운 바람을 막는 병풍역할을 하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시원한 바람과 일조 조건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나 농업용 관개용수의 사용이 편리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를 막을 수 있다.<sup>63)</sup>

음택풍수의 경우 사신사가 결합이 있을 경우 용맥 배양과 보호를 위한 식재(植栽), 보토(補土), 조산 등의 비보행위가 있게 된다. 그러나 양택풍수에서 사신사의 결합은 나무를 품종별로 각각의 방위에 심는 행위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택풍수에 비해 양택풍수의 사신사 비보행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둘째, 오성에 따른 길흉 판단은 다분히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반영한다. 환경결정론이란 인간의 생활양식은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가능론이란 환경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 즉 인간은 환경이 부여하는 기회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산의 모양이 목·토·금·수성의 경우에는 인간이 거주하기 적절하지만, 화형의 경우 화형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환경가능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화형의 경우 인간이 거주하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마름질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셋째, 음택과 마찬가지로 양택에 있어서도 물의 흐름은 해당입지를 등글게 감싸고 돌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현대 부동산학적 연구에서 한강의 중심으로 궁수와 반궁수의 주택가격 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 결과 궁수에 입지한 주택은 반궁수에 입지한 주택에 비해 가격이 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64)</sup>

이는 지질학적 입장에서도 공격면과 충전면으로 구분한다. 즉, 하천에서 공격면(cut-bank)은 침식을 받아 후퇴하는 면이고, 그 맞은 편인 하안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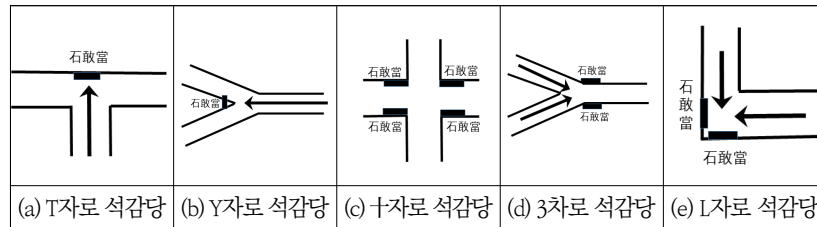
63) 水野杏紀, 「四神相応と植物: 『営造宅経』と『作庭記』を中心として」, 『人間社会学研究集録』 3, 大阪府立大学, 2008, 174쪽.

64) 천인호, 「풍수의 물흐름에 따른 주택가격의 결정」, 『서울도시연구』 10(1), 서울연구원, 2009, 75-86쪽.

래, 자갈 등이 쌓여 층적면(point-bar)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공격면은 홍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 된다. 따라서 풍수에서의 요대수의 개념도 지질학적으로는 층적면에 거주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개념이 된다.

넷째, 음택풍수는 물이 집을 찌르거나 베거나 쓰듯이 하는 것은 모두 흉하다고 보고 있는데 양택풍수에서는 물과 도로를 동일시하고 있다. 오키나와 지역의 석감당은 <그림 7>과 같이 ‘십(十)’자형 도로의 꼭각지역, 도로가 집을 직접 향하는 Y자형 삼차로, L자형 도로 및 ‘공(工)’자, ‘정(丁)’자형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현대의 도로는 사람과 각종의 차들이 통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고 볼 때 현대적으로 적절한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 도로 유형별 석감당 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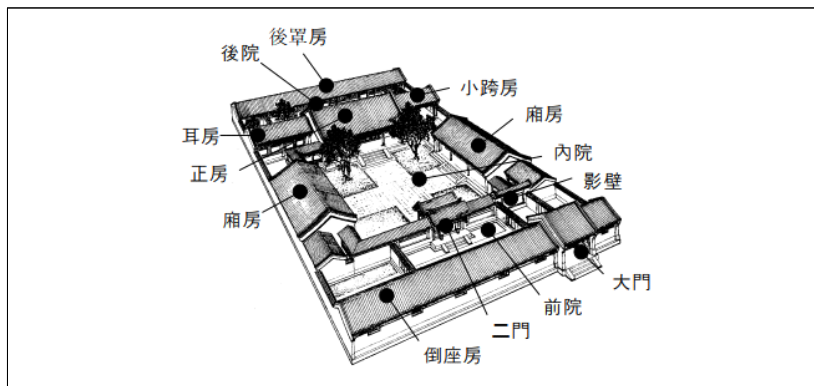
자료: 천인호, 「오키나와 석감당의 풍수적 해석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연구』 79, 한양대 동아시아 연구소, 2019, 130쪽.

반면 양택풍수서의 이론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첫째, 음양택 풍수이론은 모두 수구가 관쇄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구가 관쇄되기 위해서는 수구산이 좌우로 협착하거나, 물이 돌아 나가야 한다. 이는 특정한 마을입지에는 적용가능하지만 대규모 입지는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그리고 산천도택의 사신상응을 적용한다면 전면이 개방되어야 하는데, 수구가 관쇄된다는 것은 전면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의 부동산이나 도시학에서는 수구관쇄는 무조건적 도입보다는 부분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택풍수서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위에 있어서 동서가 좁아도 남북은 길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는 중국의 사합원(四合院)의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중국의 사합원



자료: 최장순, 「중국 사합원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7(19), 한국농촌건축학회, 2005, 117쪽.

사합원은 중국의 자연환경이 모래와 먼지가 많은 관계로 외부와 단절된 형상의 건물배치가 유리하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외부적으로 폐쇄적이고 내부로는 개방적인 구성을 하고, 내부로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정이 반드시 존재하여, 모든 중국 건축의 특징이 된다.<sup>65)</sup> 사합원의 기본구조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좁은 형태인데 이것이 중국의 양택풍수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이나 현대 건축물은 대체로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양상을 보인다.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을 경우,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경우보다 일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대 부동산이나 도시학에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5) 최장순, 「중국 사합원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7(19), 한국농촌건축학회, 2005, 117쪽.

## 5. 결론

고전 풍수는 음택과 양택을 구분하지 않고, 음택풍수의 원리가 양택과 양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음택풍수의 발생과 달리 양택풍수 역시 문헌상으로는 중국의 경우 『황제택경』을 필두로 『사마두타지맥결』, 『유설』, 『양택십서』, 『양택집성』, 『양택찰요』, 『양택대전』 등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경우 『작정기』를 필두로 다양한 가상서가 발간되고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 등에 양택풍수와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양택풍수서를 중심으로 음택풍수이론과는 다른 방향에서 발전하고 전개되어온 양택풍수의 원리는 양택고전을 바탕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풍수의 사신사는 산을 의미하고 주작의 경우 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양택풍수의 사신사는 현무를 산, 청룡을 강, 백호를 도로, 주작을 연못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음택풍수와는 달리 양택풍수는 사신사가 없을 경우 각각 이를 대체할 수목의 품종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무가 없을 경우 능금나무(奈)·살구나무(杏), 청룡이 없을 경우 복숭아나무(桃)·버드나무(柳), 백호가 없을 경우 치자나무(梔)·느릅나무(榆), 주작이 없을 경우 매화나무(梅)·대추나무(棗)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음택풍수의 비보론에서는 볼 수 없는 양택풍수 비보론의 특징이다.

둘째, 음택과 마찬가지로 양택의 택지론도 오성(五星)이 중심이 된다. 음택의 오성은 산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양택의 오성은 지붕 모양과 집 전체의 형태로 판단하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화성(火星)을 금기시 하는 것은 음택론과 유사하다.

셋째, 산의 형국에 있어서 특정한 모양이 길하다던가, 흉하다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음택론과 유사하다. 음택과 양택 모두 물의 흐름은 혈장은 환포하는 경우를 길한 경우로, 혈장을 찌르거나 베거나 충하는 경우를 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택풍수에서는 물과 도로를 동일하게 판단하여 도로를 집을 찌르거나 충하는 경우를 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외형길흉에서는 가장 길한 것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형태이다. 다음으로 동서가 부족한 곳은 사람이 살만 한 곳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북이 부족한 경우는 가장 흉하고, 동서로 길고 남북이 좁으면 반길반흉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현대 도시학과 부동산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양택 사신상응은 전면이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주택에서의 전망(view) 확보 등에 유리하다. 둘째, 오성에 따른 길흉에서 화성의 경우 비보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물의 흐름은 양택을 향해 등글게 감싸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점은 음택이론과 동일하다. 현대 연구에서도 궁수의 주택은 반궁수의 주택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만 하다. 넷째, 도로나 물이 양택을 찌르는 듯 한 경우, 양택풍수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돌을 세워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데 현대에는 이러한 장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대에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음택풍수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수구관쇄는 현대 양택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비보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양택서에 공통적으로 동서가 좁아도 남북은 길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조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는 양택풍수이론의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양택에서의 이기론과 특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방수론(放水論)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풍수가 현대의 논리와 체계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음택풍수와는 다른 체계로 발전한 양택풍수에 대한 이론적 규명과 현대 적용의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택풍수와 양택풍수 모두 고유의 가치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 이론의 통합적 논의뿐만 아니라 현대에의 시사점을 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자료

『撼龍經』  
『洞林照膽』  
『山林經濟』  
『雪心賦』  
『疑龍經』  
『陽宅十書』  
『陽宅集成』  
『營造宅經』  
『林園經濟志』  
『人子須知』  
『類說』  
『葬書』  
『作庭記』  
田中一德齋, 『家相方位方運』  
『齊民要術』  
『黃帝宅經』

### 2. 논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18일.  
沈鎬 著, 허찬구역, 『地學』, 육일문화사, 2001.  
윤정중·유완, 「도시경관의 조망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천인호, 「일본 풍수에서의 귀문회피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 동아시아연구소, 2014.  
\_\_\_\_\_, 「오키나와 석감당의 풍수적 해석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연구』 79, 한양대 동아시아연구소, 2019.  
\_\_\_\_\_, 「풍수사신사: 음·양택적 의미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41(4), 정신

- 문화연구원, 2018.
- \_\_\_\_\_, 「풍수의 물흐름에 따른 주택가격의 결정」, 『서울도시연구』 10(1), 서울연구원, 2009.
- 최장순, 「중국 사합원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7(19), 한국농촌건축학회, 2005.
- 최형석·김황중, 「경관조망의 유형과 조망차폐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1),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 多々郎美春·元貞喜·白井彦衛, 「伝統的庭園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1)-「作庭記」における流路を中心に」, 『千葉大園学報』 46, 千葉大学, 1992.
- 水野杏紀, 「四神相応と植物:『営造宅経』と『作庭記』を中心として」, 『人間社会学研究集録』 3, 大阪府立大学, 2008.
- 水野杏紀, 「作庭記にみる禁忌・陰陽五行・四神相応」, 白幡洋三郎 編, 『作庭記と日本の庭園』, 思文閣出版, 2014.
- 劉海宇, 「秦代の「数術」簡牘順文献における私邸庭園及びその性格」, 『岩手大学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 2, 岩手大学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 2014.
- 萩原義雄, 『作庭記における日本語研究』, 勉誠出版, 2011.

〈Abstract〉

## Housing Site Theory of Housing Fengshui and Modern Meaning

Cheon, 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common contents of housing fengshui(陽宅風水) which has been developed to the direction different from that of grave fengshui(陰宅風水) as well as to clarify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 Further, it intends to present suggestions on modern real estate science and urbanology.

Fengshui essentially views grave and housing as same thing, implying that they are different only in size and also applies theory in the same way.

However, both grave fengshui book and housing fengshui book emerged in China. Generally examining housing fengshui book of Korea, China & Japan, we found the following common points.

First, grave Four Gods(四神砂) are composed of 4 mountains, housing Four Gods comprised of mountain, river, pond and road. This emphasizes the openness of housing, life convenience and traffic. In case that Four Gods are absent, they substitute Four Gods by planting specific tree.

Second, good or ill luck was judged with the shape of mountain based on Five-Elements(五行) when choosing house site. Environmental & ecological vision that dweller is affected by the shape of mountain in front of or at the back of house.

Third, stream and road are considered in the same vision. Thus, people avoid the shape which looks as if piercing house. To this end, they practice Bibo(裨補) act, e.g., erecting stone or planting tree.

However, housing fengshui theory has some points which are hardly applicable to modern time. Namely, the fact that Sugu(水口: last point

through which water flows out) should be closed cannot be applied to modern time, because housing Four Gods means the openness of all directions. Thus, another method is to secure openness and to control it through forest or Chosan(造山:small artificial mountain).

Besides,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point that house should be long in south-north direction, narrow as it may be in east-west direction to modern time.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introducing theory of housing fengshui is proper to modern house and city. As there are many theories of grave fengshui similar to those of housing fengshui, the integrated study on proper grave & housing fengshui for real estate & city is necessary.

\* Key Words: Fengshui, Fengshui Geography, Real Estate, Urban, Housing Fengshui

·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08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0년 11월 16일